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19-지역이슈-1(2019.4)

## 중양아시아 경제특구 현황과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



### CONTENTS

I. 경제특구 설립 배경과 관련 정책

II. 경제특구 현황

III. 경제특구 투자 현황

IV. 경제특구의 특징 비교

V.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 <요 약>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및 광물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

-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이 GDP의 17.1%, 카자흐스탄은 광물 채굴 및 가공업이 GDP의 15.2%를 점유
- 우즈베키스탄은 저부가가치의 섬유 및 식음료와 금속 및 비금속 부문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4.5%, 카자흐스탄은 철금속과 식음료의 비중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6.2%를 점유
-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광물 및 농업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47.4%,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및 금속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88.2%를 기록

### 양국은 국산화 프로그램 등 제조업 발전 정책들을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국산화 프로그램, '2017~21 발전전략'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소기업 육성, 산업다각화 등을 추진
- 이와 동시에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처음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21개의 경제특구 운영

- 부문별로는 10개의 산업, 8개의 제약, 2개의 농어업 및 1개의 관광 경제특구 지정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18개의 경제특구가 지정
- 특구별로 중점 투자유치대상국이 있으며(나보이 경제특구는 한국기업, 지작 경제특구는 중국기업, 안그렌 제약 경제특구는 인도기업), 국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생산, 수출용 제품 생산 장려
- 나보이, 지작, 안그렌 등 2017년 이전에 설립된 경제특구에 한국, 중국 기업들이 투자

### 카자흐스탄은 2001년 처음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12개의 경제특구 운영

- 부문별로는 5개의 산업, 4개의 산업 및 서비스 혼합, 1개의 기술, 1개의 서비스 경제특구 지정
- 수도인 누르술탄의 도시 개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호르고스 특구 등 지역에 특징적인 경제특구 지정
- 대도시 주변인 아스타나 신도시\*, IT 파크 경제특구와 석유, 물류 등에 장점을 가진 악타우 경제특구에는 투자가 유치되고 있으나, 다른 특구에서는 성과 미미 (\*수도명의 변경에도 특구의 명칭은 유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특구에 주로 투자

- 한국기업은 경제특구 지정 초기부터 우리 정부에 자문을 요청한 나보이 경제특구에 4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안그렌 경제특구에 2개 기업, 지작 경제특구에 1개의 기업이 공장을 가동
- 주로 GM-Uzbekistan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많으며, 점차 화장품, LED 램프 등의 기업 진출

### 향후 협력방안

- (우즈베키스탄) 제약부문 등 현지 정부의 중점육성부문과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약 3,300만 명)를 보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 (카자흐스탄) ICT 부문 등 현지 정부의 중점육성부문과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가입)을 진출을 위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국 일대일로 추진으로 발전이 전망되는 호르고스 물류 및 생산특구 진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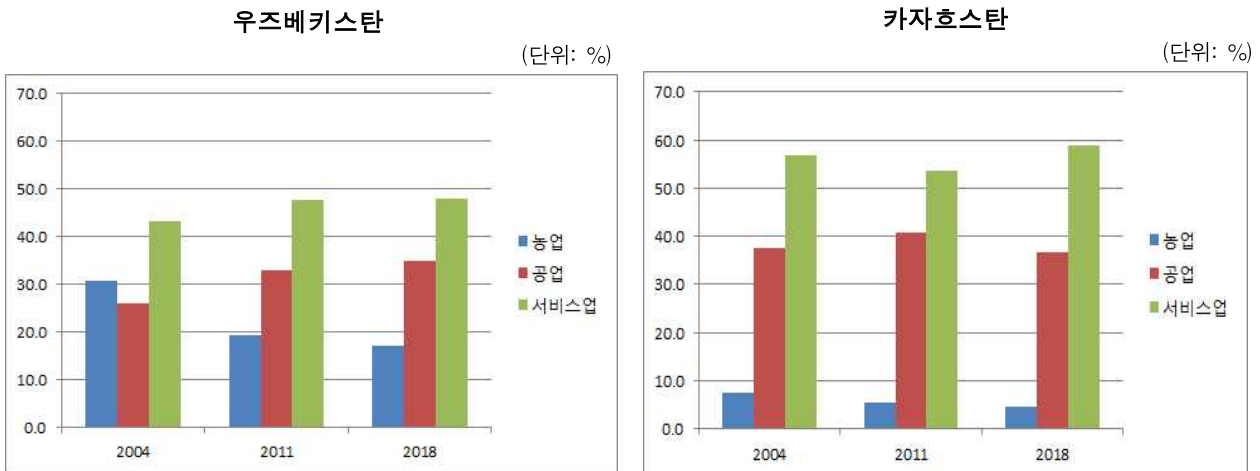


## I. 경제특구 설립 배경과 관련 정책<sup>1)</sup>

### 1.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

- 우즈베키스탄은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및 식음료, 카자흐스탄은 광물 채굴 및 가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우즈베키스탄은 공업이 2018년 GDP의 35.0%를 점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및 식음료의 비중이 전체 공업의 44.5%를 차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공업이 2018년 GDP의 36.7%를 점유하고 있으나, 광물 채굴 및 가공업(GDP의 15.2%)이 전체 공업의 50.8%를 차지하고 있음.<sup>2)</sup>

[그림 1]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GDP 대비 산업별 비중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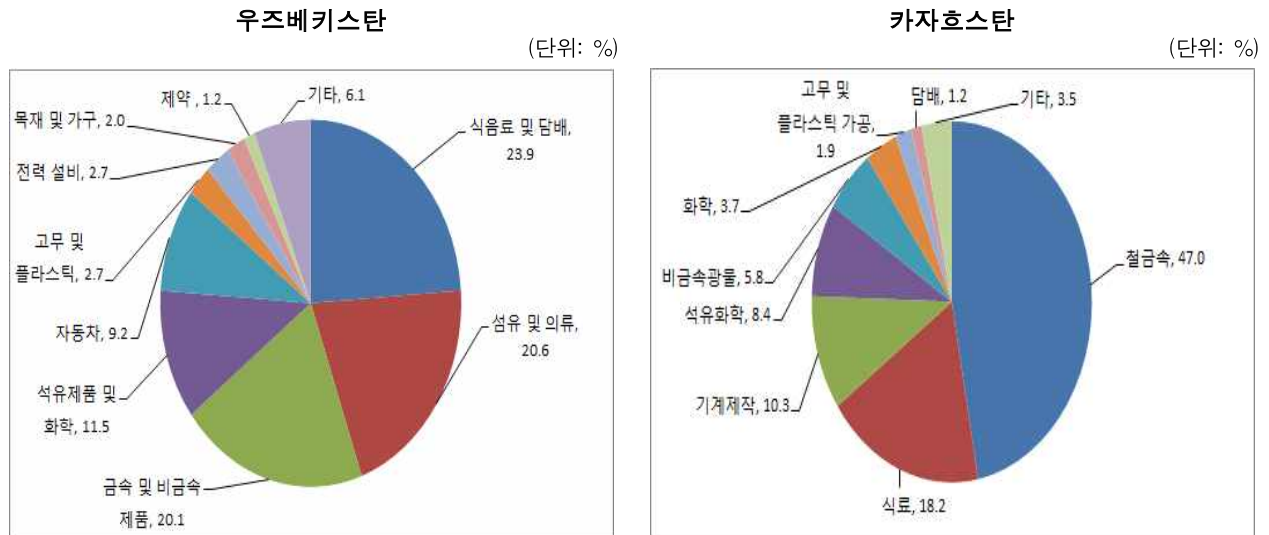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몇몇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부문의 생산은 부진함.
- 우즈베키스탄은 식음료 및 담배, 섬유 및 의류, 금속 및 비금속 부문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철금속과 식음료의 비중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6.2%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등 원자재이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은 부진한 수준임.
- 우즈베키스탄의 2018년 상품수출은 에너지 자원(21.3%), 금(15.2%), 면화(10.9%)가 전체의 47.4%를 점유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2018년 상품수출은 광물·에너지(74.6%), 금속(13.6%)이 전체의 88.2%를 점유하고 있음.

1)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이며, 한국과 교역 및 투자 협력이 긴밀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함.

2)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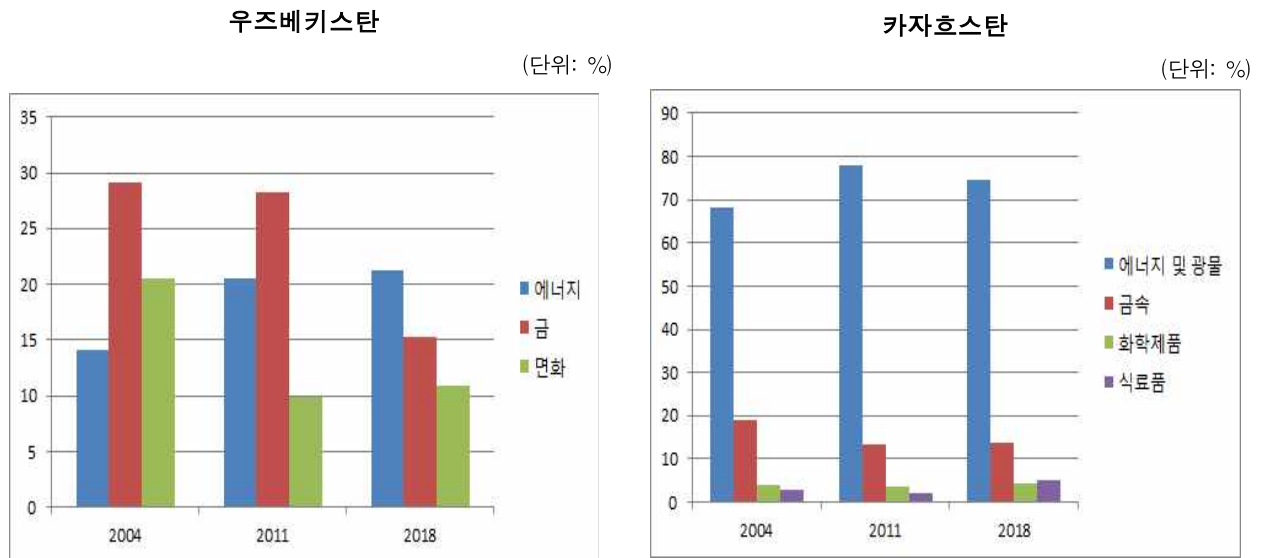
[그림 2]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부문별 비중(2017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그림 3]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2018년)



자료: EIU

- 이러한 제조업의 부진은 물류의 취약성(<박스 1> 참조)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은 해당 국가의 상품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제조업 제품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시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 \* 우즈베키스탄은 2001~10년 중 평균 14.5%, 2017년 12.5%, 2018년 17.9%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지는 2013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 카자흐스탄은 2001~10년 중 평균 8.6%, 2017년 7.4%, 2018년 6.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에 따른 것임.



**<박스 1>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물류 취약성**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내륙에 위치하여 물류환경이 취약하며, 세계은행 국제물류성과지표(LPI) 평가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평가대상 160개국 중 카자흐스탄은 71위, 우즈베키스탄은 99위에 그쳤음. 카자흐스탄은 물류역량과 물류인프라, 우즈베키스탄은 통관과 국제운송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아울러 양국은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등과 같은 수출입의 행정절차, 운송, 보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표 1]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2018년 국제물류성과지표(LPI) 순위**

국 가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71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자료: World Bank, 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2018)

**2.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부 정책**

-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과 국산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발전 정책 추진
- (발전전략 및 국산화 프로그램) 2017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후 '2017~21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과 '2017~19 완제품 및 조립품 생산의 국산화 프로그램', '2019~21 경제개혁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제조업 발전을 추진함.
- (경제특구)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8년 이후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표 2]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발전 관련 정책**

구 분	추진시기	주요 내용	제조업 발전 정책
2017~19 완제품 및 조립품 생산의 국산화 프로그램	2016년 12월	-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 국내 제조업 생산 확대	완제품 및 조립품 등 제조업의 국산화 생산율 목표 달성 추진 : 2017년 36%, 2018년 45%, 2019년 50%
2017~21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발전전략	2017년 2월	- 정부와 사회의 민주주의 확대 - 법치 보장과 향후 법제도 개혁 - 경제발전과 자유화 - 사회 부문의 발전 - 안전 보장 및 민족 간 화합, 종교적 관용, 건설적 대외정책	- 경제 현대화와 산업다각화 추진 - 개인소유 및 기업 활동 보장 -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2019~21 경제개혁 로드맵	2019년 1월	- 거시경제 안정 -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 사회보호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확고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 및 환경의 효율적 이용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 (카자흐스탄) 제조업 발전 프로그램 추진
  - (발전전략) '국가 산업·혁신 발전 프로그램 2015~19', '카자흐스탄 2050', '100개의 구체적 방안' 등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국영 지주회사) 2015년 설립된 국영지주회사 바이테렉을 통해 제조업 발전을 지원함. 바이테렉의 자회사인 기술개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등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특구) 2000년대 초부터 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IT, 석유화학, 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특구를 지정하고 있음.

**[표 3]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발전 정책**

구 분	추진시기	주요 내용	제조업 발전 정책
2015~19 국가 산업·혁신 발전 프로그램	2014년	2010~14 발전 프로그램에 이어 산업다각화 추진	- 제조업 중 우선육성 부문(야금,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제시 - 중소기업 활성화 -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과 부가가치 제고 - 혁신 부문(기술, 항공우주, 유전공학 등) 발전 추진
누를리 졸	2014년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 발전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정책(2050년까지 중소기업의 비중을 GDP의 50%로 확대) - 기계제작 부문 육성 - 기업의 수출 지원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100개의 구체적 방안	2015년	투자환경 개선과 국제 협력, 혁신 발전 등	- 비원자재 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7년 12월	- 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실�크로드 - 인적자본 개발 - 혁신생태계 조성	- 2022년까지 ICT 활용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49.8% 향상 - 수출지향적 IT 기업 육성, 경제특구 내 혁신기술 파크 개발



## II. 경제특구 현황

### 1. 우즈베키스탄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현황<sup>3)</sup>

- (전체) 2008년 최초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였고, 2019년 4월 현재 모두 21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부문별로는 산업 10개, 제약 8개, 농어업 2개, 관광 1개임.<sup>4)</sup>
- (산업 경제특구) 2008년 이후 10개의 산업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는 2017년, 3개는 2018년에 지정되었음.
- (제약 경제특구) 2017년 이후 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8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5월 누쿠스, 조민, 보이순, 코손소이, 시르다리아, 부소톤릭, 파르켄트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안디잔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 2018년에는 부하라 농업 특구, 수산물 가공 특구, 차르박 관광 특구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경제특구 수를 늘리는 동시에 특정 산업 분야별로 특구를 지정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 우즈베키스탄 산업 경제특구 현황(2019년 3월 말 기준)**

명칭	주요 투자 유치 부문	운영 개시일	면적(헥타르)	가동기업	특징
나보이	제조업	2008.12월	564 (배후단지 121)	17개	한국 기업 유치
안그렌	제조업(화학, 석유화학), 건축자재, 첨단 산업	2012.4월	1,638 (물류센터 36.7)	21개	타슈켄트에 대한 소비재 공급
지작	첨단산업, 가죽, 식료	2013.3월	524	15개	중국 기업 유치
우르곳	기계, 자동차, 과일가공	2017.1월	42	(10개)	기존의 산업단지
기지두반	섬유, 건축자재, 광물, 과일가공	2017.1월	67.5	(18개)	부하라, 나보이 인근
코간드	전자부품, 기계, 제약, 섬유, 농산물 가공, 플라스틱 제품, 가죽	2017.1월	709.3	-	키르기즈와의 국경지역
하자로습	섬유, 건축자재, 식료, 화학, 제약	2017.1월	406.8	-	-
시르다리아	광물 가공, 농산물 가공, 섬유	2018.4월	-	-	-
나망간	과일, 채소, 섬유, 가죽, 기계, 건축자재	2018.8월	-	-	-
테르메즈	운송 및 물류	2018.9월	3,000	-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역 및 운송물류

\* ( ) 안은 가동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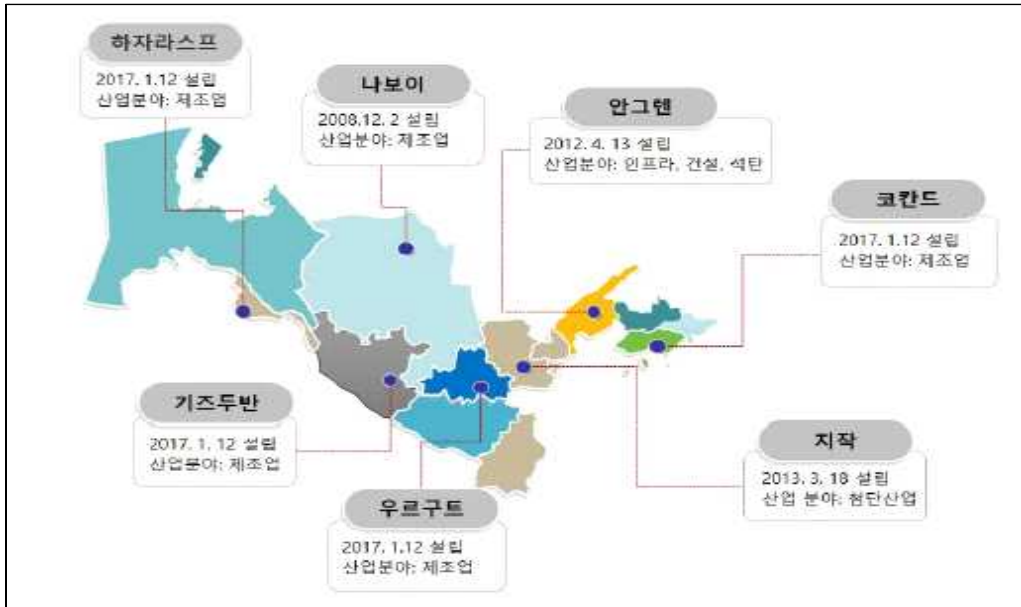
자료: <https://sez.gov.uz/ru>,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3)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어 명칭의 한국어 번역은 자유경제지대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 공식 표기를 Special Economic Zone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특구로 표기함. <https://sez.gov.uz/ru>

4) <https://sez.gov.uz/ru>



[그림 4]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 경제특구 위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2018년, p. 16.

[표 5] 우즈베키스탄 제약 경제특구

부 문	지 역	지정 시기
제약 경제특구	누쿠스, 조민, 보이순, 코손소이, 시르다리아, 부소톤릭, 파르켄트	2017.5월
	안디잔	2019.1월

자료: <https://sez.gov.uz/ru>

[표 6] 우즈베키스탄 관광 및 농·어업 경제특구

부 문	지 역	특 징	지정 시기	
관광 경제특구	관광	타슈켄트 주	침간산, 차르박 호수 지역에 호텔, 오락 시설 등 관광 단지 건설	2017.12월
농·어업 경제특구	어업	타슈켄트 주	저수지 등에 어류 양식을 통해 관련 제품(통조림, 알 등)을 생산	2018.4월
	농업	부하라	과일, 채소 등의 온실 재배	2018.7월

자료: <https://sez.gov.uz/ru>

### 주요 경제특구의 특징: 나보이, 안그렌, 지작 경제특구

- 나보이 경제특구
  -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경제특구이며, 인근에 나보이 국제공항과 화물터미널이 위치하여 생산과 물류의 연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문가들이 나보이 경제특구 발전방안을 자문하였고, 대한항공이 나보이 국제공항과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안그렌 경제특구
  - 수도인 타슈켄트에 인접(80km 거리)하여 인구가 많은 페르가나 지역과 수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안그렌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 화학, 가죽, 식료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타슈켄트 지역에 공급코자 하며, 첨단기술 제품의 투자도 유치코자 함.
  
- 지작 경제특구
  - 우즈베키스탄의 2대 도시인 사마르칸드에 인접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기업 간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특구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 안디잔 제약 경제특구
  - 가장 최근(2019년 1월)에 지정된 제약 경제특구이며, 특구 내에 제약 산업이 발달한 인도 제약업체의 투자유치와 우즈베키스탄 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있음.

###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 (지원) 세제, 관세면제, 인프라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 소득세, 토지세, 자산세 등 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 등을 제공함.
  - 투자금액에 따라 면세기간이 3년에서 10년까지로 차이가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면세기간이 긴 특징이 있음. 투자금액별로 30만~300만 달러는 3년, 300만~500만 달러는 5년, 500만~1,000만 달러는 7년, 1,000만 달러 이상은 10년의 면세혜택이 주어짐.

[표 7]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혜택

구 분	경제특구 내 혜택
법인세, 재산세, 사회 인프라세, 중소기업 단일세, 도로펀드, 토지세, 국가교육개발펀드 등 세금 혜택	- 투자금액 30만~300만 달러 : 3년 간 면세 - 투자금액 300만 달러 ~ 500만 달러 : 5년 간 면세 - 투자금액 500만 달러 ~ 1,000만 달러 : 7년 간 면세 - 투자금액 1,000만 달러 이상 : 10년(추가로 5년 간 세율의 50% 적용)
관세 면제	- 경제특구에서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원자재, 예비부품 - 경제특구에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설자재
인프라	- 특구 지역 내 토지 및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전력, 난방, 가스 등) 제공
단일 행정 창구	- 행정 허가 등 서류 처리, 법률 자문, 정보 제공 등

자료: <https://sez.gov.uz/ru/page/info>



## 2. 카자흐스탄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현황

[표 8]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현황

명칭	특구 유형	주요 부문	운영시기	면적(헥타르)	운영 기업 수 (입주 준비) <sup>5)</sup>
아스타나 <sup>6)</sup> 신도시	산업, 서비스	건설, 산업 등	2001.06~2027.06	598	41(25)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	산업, 서비스	혁신, 첨단기술	2017.11~2042.12	584	(4) <sup>7)</sup>
악타우	산업	물류, 석유설비	2002.04~2028.01	2,000	16(19)
IT 파크	기술	IT	2003.08~2028.01	163	79(38)
온투스틱	산업	섬유, 석유화학	2005.07~2030.07	200	9(8)
NIPT(아티라우)	산업	석유화학	2007.12~2032.12	3,476	1(3)
사리아르카(카라간다)	산업	철광석, 금속	2011.11~2036.12	534.9	6(5)
파블로다르	산업	석유화학, 화학, 금속	2011.11~2036.12	3,300	6(6)
호르고스-동쪽 문	서비스	물류	2011.11~2035.12	4,592	1(4)
호르고스	산업, 서비스	수출산업, 교역	2017~2041	493	-
타라스 화학 단지	산업	화학	2012.11~2037.01	505	0(7) <sup>8)</sup>
투르키스탄	산업, 서비스	도시 발전, 관광	2018.10~2043.12	1,338	-

자료: <https://invest.gov.kz> 카자흐스탄 투자청

### 카자흐스탄 전역에 12개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중점 부문에 따라 산업, 서비스, 기술 특구, 혼합 특구로 구분

- 1996년 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 2001년 아스타나 신도시 특구 지정 이후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투르키스탄 경제특구가 12번째의 특구로 지정됨.
- 산업 특구 : 악타우, 온투스틱, NIPT(Nation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park), 파블로다르, 사리아르카, 타라스 등
- 서비스 특구 : 호르고스-동방의 문 특구
- 기술 특구 : IT 파크(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특구
- 산업 및 서비스 혼합 특구 : 아스타나 신도시,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 투르키스탄 등

5) SEZ. Kazakh Inves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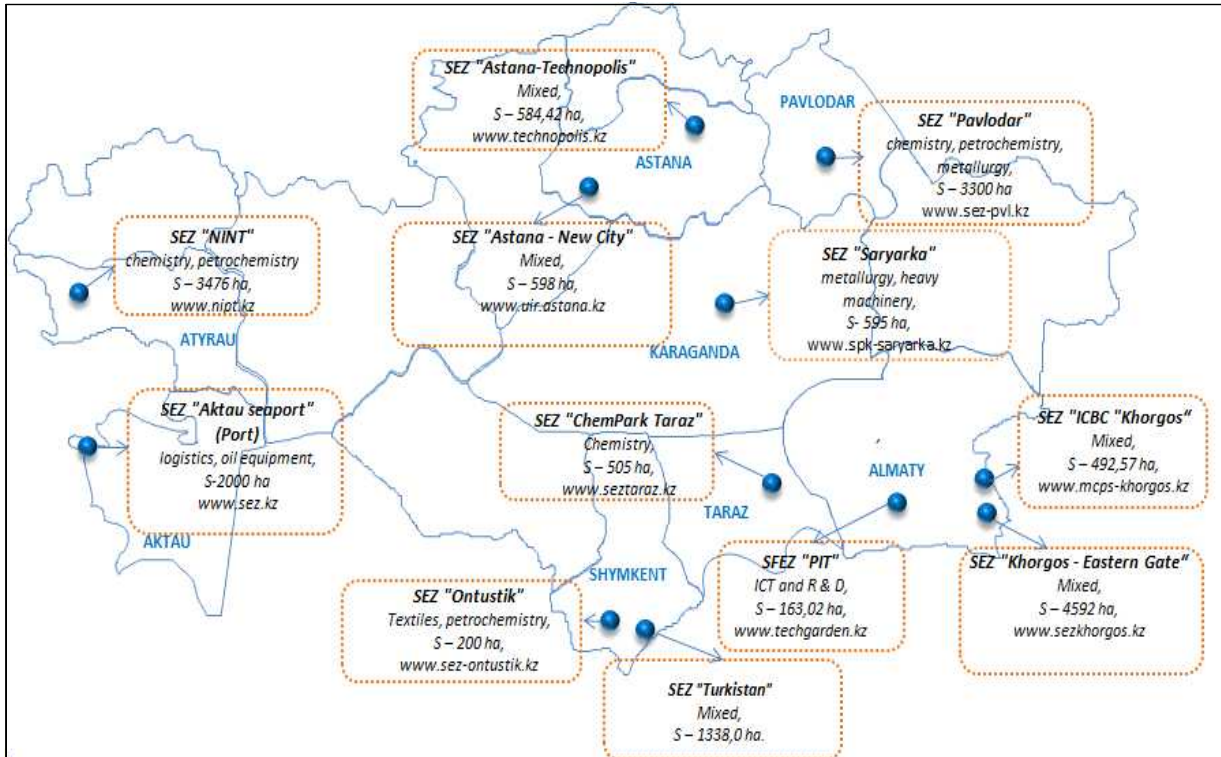
6) 2019년 3월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사임이후, 3월 20일 상하원의 결의와 23일 카심 토카예프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아스타나의 명칭이 초대 대통령의 이름인 '누르술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구의 명칭은 '아스타나 신도시'를 유지하고 있음.

7) 2018년 10월 30일 기준. <http://invest.miid.gov.kz>

8) 위의 자료.



[그림 5]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의 위치



자료: <https://invest.gov.kz/doing-business-here/fez-and/>

### 주요 경제특구의 특징: 아스타나 신도시, PIT, 아티라우, 호르고스 등

- 아스타나 신도시
  - 1997년 천도한 새 수도 아스타나의 건설과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도시 인프라 건설에는 병원, 학교, 유치원,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 시설, 사무실, 주택 등이 포함됨.
  - 투자유치 부문에는 금속, 비철금속, 화학, 항공기 등의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제품, 식음료, 가구 등 소비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이 포함됨.
- IT 파크 경제특구
  - 옛 수도이자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인 알마티 근교의 알라타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IT 산업에 특화된 특구임.
  - IT 및 첨단기술 기업과 IT 관련 연구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악타우 경제특구
  - 카스피해 연안의 에너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망기스타우 지역에 위치하여 원유 및 광물 채굴과 석유 화학, 광물가공 등에 장점을 지니고 있음.



- 향후 카스피해를 통한 물동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항만들과의 항만물류 산업 협력이 유망함.
- '호르고스-동방의 문' 물류특구와 호르고스 산업특구
  - 중국과의 국경 인근 지역인 호르고스에 물류 특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
  - 기존에 중국으로부터 물품이 유입되었던 도스틱에서의 물류처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호르고스를 새로운 국경물류 단지로 발전시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물류특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과 물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중국 등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호르고스 물류특구와 일대일로



자료: Xinhua; U.S. Department of Defence; Gazprom; Transneft; UN

###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 (지원) 세제, 행정, 고용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 소득세, 토지세, 자산세 등 세제와 관세 혜택 등을 제공함.
  - 또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혜택을 제공함.



[표 9]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혜택

구 분	특구 내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 관련된 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관세 혜택	- 특구 내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특구 건설에 필요한 장비, 기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인프라 지원	- 특구 지역 내 토지 및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전력, 난방, 가스 등) 무상 제공
단일 행정 창구	- 행정 허가 등 서류 처리 - 법률 자문 - 정보 제공
고용 혜택	-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혜택(1백 만 MCI <sup>9)</sup>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외국인 할당제 예외 적용)

9) MCI(Monthly Calculation Index)는 사회보조금 지급, 벌금 부과, 세금 수납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며, 2019년 기준 2.525텁기에 해당됨.  
 (자료: <http://egov.kz>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 Ⅲ. 경제특구 투자 현황

####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투자

- 우리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나보이 경제특구에 주로 진출해 있으며, 수도에 가까운 안그렌 경제특구에도 진출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주로 GM-Uzbekistan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ED 램프와 화장품 등 공장도 운영하고 있음.

[표 10]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현황

투자 지역	기업	부문	현황
나보이	이레케이블	차량 케이블	가동 중
	이레발전기	차량 발전기	
	NB코스메틱	화장품	
	Ko-UNG실린더	차량 실린더	
안그렌	신동실리콘	실리콘	가동 중
	EGL-NUR	LED 램프	
지작	OWTLL	LED 램프	가동 중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중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투자

- 중국 기업들은 지작 경제특구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나보이, 안그렌에도 투자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국 기업 유치를 목표로 지정한 지작 경제특구에는 중국의 16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나보이 경제특구에 4개, 안그렌 경제특구에 1개 기업이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지작 특구에서는 통신 장비 부품, 광학기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나보이 특구에서는 케이블과 위생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투자

- 싱가포르, 인도, 영국 등의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투자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2개 기업이 나보이 경제특구에서 셋톱박스과 LED 램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그렌 경제특구에서 싱가포르-오스트리아 합작기업이 설탕을 생산하고 있음.
- 나보이 경제특구에는 인도, UAE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안그렌 경제특구에는 영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표 11]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각국의 투자 현황

투자 지역	투자 국가(기업 수)	투자 부문
나보이	한국(4), 중국(4), 인도(2), 싱가포르(2), 이탈리아(2), 영국(1) 등	자동차 부품, 화장품, LED 램프
안그렌	한국(2), 중국(1), 영국(3), 우크라이나(1) 등	광물 가공, LED 램프, 설탕 제조
지작	한국(1), 중국(16)	통신 및 광학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LED 램프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투자

- 아스타나-신도시와 악타우 경제특구 등에 외국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음.
- 아스타나-신도시에는 러시아의 트랜스마쉬홀딩, 프랑스의 알스톰, 스페인의 탈고 등 대기업들과 터키의 제지업체가 투자하고 있음.
- 악타우 경제특구에도 터키와 이탈리아의 석유 파이프라인 생산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음.
- 기타 투자
- UAE의 물류업체인 DP World사가 악타우와 호르고스 특구에 투자하여 이 지역에서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sup>10)</sup>
- 러시아는 우주발사기지가 있는 바이코누르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논의하고 있음.<sup>11)</sup>

[표 12]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 현황

투자국(기업)	경제특구	부 문	투자 내용
러시아(트랜스마쉬홀딩)	아스타나-신도시	기관차 조립	투자액 166억 텡게 / 면적 27.3헥타르 / 고용인원 611명
러시아(트랜스마쉬홀딩), 프랑스(알스톰)	아스타나-신도시	경전철 기관차 생산	투자액 96억 텡게 / 면적 8.1헥타르 / 고용인원 451명
스페인(탈고)	아스타나-신도시	경전철 객차 생산	투자액 104억 텡게 / 면적 21.3헥타르 / 고용인원 128명
터키(Aselsan 엔지니어링)	아스타나-신도시	광학 기기 생산	투자액 78억 텡게 / 면적 7.5헥타르 / 고용인원 128명
터키(Ipek Kagit Central Asia)	아스타나-신도시	제지 공장	투자액 34억 텡게 / 면적 5헥타르 / 고용인원 60명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Arcelor Mittal Tubular Products Aktau)	악타우	파이프라인 생산	투자액 93억 텡게 / 면적 52헥타르 / 고용인원 156명
이탈리아(카자흐스탄 파이프 트레이더스)	악타우	파이프라인 생산	투자액 74억 텡게 / 면적 74헥타르 / 고용인원 50명

자료: SEZ. Kazakh Invest. 2018.

10) <https://www.zawya.com> 2018.12.31.

11) <https://www.azernews.az> 2018.09.11.



## IV. 경제특구의 특징 비교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정책의 특징

- 국내 소비를 위한 생필품이나 기계류,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투자를 주로 유치코자 하며, 전기 및 전자 산업도 유치하여 국내 소비와 수출 증대를 추진함.
- 국내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광물, 면화, 농산물 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코자 함.
- 지역별로 중점 협력국가를 지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나보이 경제특구는 한국 기업, 지작 경제특구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안디잔 제약 경제특구는 인도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주변국과의 교역 및 운송물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음.
- 코간드 경제특구는 키르기스 및 중국과의 운송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서 25.5km에 위치한 테르메즈 특구는 아프가니스탄과의 운송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었음.
- 최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으며, 제약 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대통령 결의안을 발표하였음.<sup>12)</sup>
- 2017년 5월 대통령령으로 7개 제약 경제특구를 지정하였고, 2019년 1월 안디잔 제약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정책의 특징

- 주요 유치 부문은 ICT, 첨단 산업, 기계, 석유화학 등임.
- 기존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을 추진하며 ICT 부문의 발전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지역의 산업 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지정하고 있음.
-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IT, 석유화학, 물류, 관광 등 분야별로 특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마티 주변의 IT 특구, 석유화학에 중점을 둔 아티라우 특구, 물류에 특징을 가진 악타우 특구 등을 지정하였음.
- 또한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 누르술탄와 투르키스탄 등 도시개발을 위한 특구도 지정하였음.
- 중국과의 교역 및 운송물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음.

12) '의약품 및 의료용품 공급 시스템 개선 조치'(2016년 10월), '제약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호혜적 환경 구성 조치'(2017년 4월), '제약분야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완성을 위한 조치(2017년 11월)' 등의 대통령 결의안이 발표되었음.





- 호르고스, '호르고스-동방의 문' 특구를 통해 중국과의 공업 및 물류협력을 추진코자 하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라 호르고스 물류특구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중국의 연운강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과 호르고스 물류특구를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음.
- 또한 '호르고스-동방의 문' 물류특구 인근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 생산특구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음.

[표 13]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특구정책 비교

국가명	주요 유치 부문	특징	주요 협력대상국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섬유, 가죽, 면화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이용한 제조업 발전 추진</li> <li>- 기계류, 의약품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추진</li> <li>- 전기, 전자 등 신기술 부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부존자원(광물 자원, 면화 등)을 활용한 생산</li> <li>- 수출용 제조업 제품 생산</li> <li>- 제약 특구, 농어업 특구, 관광 특구 등 특정 산업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나보이)</li> <li>- 중국(지작)</li> <li>- 인도(안디잔)</li> </ul>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개발</li> <li>- 석유화학 등 에너지 부문</li> <li>- ICT, 첨단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관광, 석유화학 등 지역적 주요 산업을 고려한 특구 지정</li> <li>- 누르술탄, 투르키스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li> <li>-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되는 물류망 구축을 위한 특구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호르고스)</li> </ul>

## 양국의 경제특구 성과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는 나보이, 지작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초의 경제특구 설립 이후 10여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최근 나보이, 지작 등의 경제특구에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모두 159건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외국인투자 3억 4,830만 달러 포함 10억 4,59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9,78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19년 1월 기준).<sup>13)</sup>
-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신도시 등 일부 특구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수도인 누르술탄에 위치한 아스타나-신도시, 최대 도시인 알마티 인근의 IT 파크와 약타운 경제특구 등에는 발전 잠재력이 높아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하였으나, 섬유 산업 중심의 온투스틱 경제특구를 비롯한 다른 특구들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특구에 165개의 프로젝트에 24억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함(2018년 2월 기준).<sup>14)</sup>

13) <https://sez.gov.uz/ru>

14) <https://astanatimes.com> 2018.02.20.



## 양국의 경제특구 전망

- (우즈베키스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신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별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어 몇몇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2017년 이후 7개의 산업 특구, 8개의 제약 특구, 3개의 농어업 및 관광 특구를 지정하며 특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수도에 위치한 아스타나-신도시 특구와 IT 파크, 악타우, 호르고스 등의 특구들은 지리적 위치와 물류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음.
- 발전 잠재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설립된 다른 경제특구의 경우 투자 유치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건설되고 있는 호르고스 산업 및 물류 특구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 등으로 다수의 중국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 V. 우리 기업의 협력 방안

###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 필요

- 우즈베키스탄의 내수시장 진출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특구에서의 생산을 통해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00년 약 2,500만 명에서 2019년 약 3,300만 명, 2024년에는 약 3,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점차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출거점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에서의 생산을 통해 다른 회원국들로의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카자흐스탄에서의 현지 생산을 통해 다른 회원국들인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등으로의 수출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타지키스탄 등 다른 CIS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대상으로 한 카자흐스탄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현지 정책과 수요에 적절한 부문 진출

- (우즈베키스탄) 제약 부문에서 협력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민 보건환경 개선 및 제약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의약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이 제약 특구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분야에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기준 약 8.7억 달러의 의약품 수입하였는데, 이는 2013년의 약 6.2억 달러에 비해 40% 가량 증가한 규모임. 반면, 우즈베키스탄 현지 제약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하여(2017년 기준),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을 고려할 수 있음.<sup>15)</sup>
- 최근(2019년 2월) 한국의 제약바이오협회는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공장 및 연구소) 및 수출 지원,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sup>16)</sup>
- 현재 한국의 제약회사 가운데는 다림바이오텍, 유한양행,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현지 의약품 시장 진출과 생산 시설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음.

15)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제약시장 및 정책동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 Brief 2018.4. pp. 17~22.

16) <http://businesspost.co.kr> 2019.02.12.



- (카자흐스탄) ICT 산업, 스마트 시티, 물류연계 등의 부문에서 협력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통해 ICT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ICT 산업,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ICT 인적자본 육성 등의 부문에서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스타나-신도시 특구에서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도시 내의 교통, 주거환경, 환경, 공원 등에서의 '스마트'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음.
  - 점차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호르고스-동방의 문' 물류특구를 우리 기업들의 물류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물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지역의 물류 장점을 고려하여 호르고스 산업특구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특구 정책 협력

- 우리의 경제특구 운영 경험 공유
  - 향후 우리나라의 특구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나 특구 운영 인력 교육 등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나망간 경제특구, 안그렌 경제특구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경제특구 운영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음.<sup>17)</sup>

17) www.asiatoday.co.kr 2019.03.10.



< 참 고 문 헌 >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제약시장 및 정책동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 2018.4.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2018년.

SEZ. Kazakh Invest. 2018.

EIU

KOTRA

<http://lpi.worldbank.org> World Bank. 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2018)

<http://invest.miid.gov.kz> 카자흐스탄 투자위원회

<http://egov.kz>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https://www.zawya.com> 2018.12.31.

<https://www.azernews.az> 2018.09.11.

<https://astanatimes.com> 2018.02.20.

<http://businesspost.co.kr> 2019.02.12.

[www.asiatoday.co.kr](http://www.asiatoday.co.kr) 2019.03.10.

<https://sez.gov.uz>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https://invest.gov.kz> 카자흐스탄 투자청

[www.xinhuanet.com](http://www.xinhuanet.com) 신화통신사